

전남도, 올해 직불금 2298억 원 지급

도내 27만1천명...전국 21% 수준

대상 면적 줄었으나 지급단가 증가

전남도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총 2298억원을 도내 농업인 27만1000여 명에게 지급한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지급되는 이번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25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직불금 총액(1조 781억원)의 21.3% 규모다.

이 가운데 쌀 고정직불금은 1672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급 대상 면적이 2671ha 줄어

지난해보다 24억원이 줄었다.

밭농업직불금은 521억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05억원이다. 직불금 대상 면적이 지난해보다 1304ha 줄었으나, 지급 단가가 높아져 49억원이 늘었다.

쌀 고정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ha(1만㎡)당 평균 100만원을 13만1000 농가에게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107만6000원, 농업진흥지

역 밖은 80만7000원이다.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지급될 예정이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난해에 비해 ha당 5만원 인상된 평균 55만원으로, 10만7000 농가에 총 521억원이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ha당 70만2000원, 농업진흥지

역 밖 농지는 52만7000원, 논이모작 농지는 50만원이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도 전년에 비해 5만원이 인상된 ha당 65만원이다. 3만3000농가에 105억원이 지급된다.

홍석봉 도 식량유통과장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연이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농업직불금이 어려운 농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하루 빨리 정해져 변동직불금까지 지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임택 동구청장, 도시재생 최우수지자체장 선정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제2회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도시재생 최우수지자체장으로 선정됐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행사인 '도시재생한마당'은 지역이 주도하고 협치로 일궈가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홍보·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동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해 동명동 주거복지지원 뉴딜사업(200억 원), 올해 인체의 거리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300억 원) 등 2년 연속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서구, 체력가득 행복가득 운동프로그램 종강식

광주 서구는 지난 25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한 '체력가득 행복가득 운동프로그램' 종강식을 실시했다.

이번 운동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구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됐으며, 평소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운동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세라밴드를 이용하는 등 근력강화 운동과 라인댄스 스포츠 등으로 진행됐다.

남구, 가을을 담은 푸른길도서관 참가자 모집

광주 남구는 28일 “오는 11월 16일 푸른길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인 ‘가을을 담은 푸른길도서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 보이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독서와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작가 초청 강연과 문화예술 공연으로 구성됐다.

먼저 초청 강연에서는 ‘노란 잡수름’에 이어 두 번째 장편소설 ‘올킬’ 작품 출간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량 작가가 무대에 오른다. 오후에 진행되는 문화예술 공연에서는 현재 샌드아트월드 대표 이면서 국내 대표적 샌드아트 작가인 김중명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 2019년 장학생 154명 선발한다

광주 북구와 (재)광주북구장학회(이사장 박치영)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대상 인원은 고등학교 78명, 대학생 76명 등 총 154명이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 50만원, 전문대학생 100만원, 종합대학생 150만원 등 1억 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15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 장학생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광산구, 이주노동자에게 재활용 겨울 외투 나눔

27일 광주 광산구가 광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주민이 기부한 겨울 외투를 이주노동자 등에게 나눠주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구 거주 외국인주민 40% 가량이 겨울 추위를 견뎌보지 못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출신인 점을 감안, 이들이 따뜻하게 낚신 계절을 날 수 있도록 광산구가 마련한 것이다.

광산구는 1개월 동안 시민과 공직자들이 기부한 장롱 속 겨울외투, 210벌을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방경찰청 등 15개 기관이 따로 모은 옷을 내놓아 행사장에서는 800여벌이 새 주인을 만났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중국서 216만달러 수출 MOU

광저우·상하이·칭다오에서 수출상담회 개최...지역기업 10곳 참여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중국서 21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칭다오에서 개최한 종합수출상담회에서 2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통해 총 10건, 216만 달러 상당의 수출 MOU를 맺었다.

시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 종합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을 갖는 사업으로 이번 수출상담회는 올해

총 7회 중 6번째다.

이번 중국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은 뉴세림테크(주), 엔트넷, 위킨위드, 제이투모우원, ㈜드림씨앤지, ㈜맥커뮤니케이션즈, ㈜신성테크, ㈜아이넷, ㈜찬솔, ㈜한국씨앤에스 등 10곳이다.

개척단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수출관련 세미나 등으로 중국시장의 유통채널과 이해도를 높이고, 수출상담을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과 반응, 기술력, 가성비 등 현지 시장조사에서 성과를 거뒀다.

주최회 시 투자통상과장은 해외시장개척단 후속관리 일환으로 해외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 해외지사화사업 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총선 출마’ 조오섭 “강기정 아바타? NO, 지향점 같을 뿐”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오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겸 소통기획관이 ‘강기정 아바타론’을 일축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강 전 대변인은 2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과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을 뿐 아바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조

전 대변인은 같은 대학 운동권 선배인 강 수석이 광주 북갑 국회의원으로 있던 2011년 같은 지역구 광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조 전 대변인은 “강 수석이 시의원 제안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시의원 8년간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 지내다 보니 ‘강기정 아바타’ 아니냐 하는데 실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강 수석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같았다. 80년대 학생운동

을 같이한 사람으로서 사회를 바라보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시각, 의회를 바꾸고 지역 정책에 대한 시각도 비슷했다”며 “강 수석이 하고자 하는 정치와 제가 하는 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갑은 강 수석이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3선 의원을 역임한 지역구다.

내년 총선에서 강 수석이 청와대 수석자리를 내려놓고 북갑에



다시 출마할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에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조 전 대변인은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정리가 된 건 아니다. 강 수석도 아직 고민 중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해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